



| | | | | | |
|--|---|----|---------------|--|--|
|  금융위원회 |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자 료</div> | | | |  금융감독원 |
| 보도 | 2018.4.17.(화) 조간 | 배포 | 2018.4.16.(월) | | |

| | | | |
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--|
| 책 임 자 |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 진 창(02-2100-2830) | 담 당 자 | 윤 덕 기 사무관 (02-2100-2835) 이 은 진 사무관 (02-2100-2836) |
| | 금융위 은행과장 전 요 섭(02-2100-2950) | | 송 현 지 사무관 (02-2100-2954) |
| | 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기 한(02-2100-2990) | | 양 병 권 사무관 (02-2100-2992) |
| |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변 제 호(02-2100-2610) | | 홍 상 준 사무관 (02-2100-2612) |
| | 금융위 보험과장 하 주 식(02-2100-2960) | | 태 현 수 사무관 (02-2100-2962) |
| | 금융위 시장분석과장 남 동 우(02-2100-2850) | | 이 용 준 사무관 (02-2100-2854) |
| |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진 석(02-3145-8020) | | 김 부 곤 팀장 (02-3145-8040) |
| |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이 창 욱(02-3145-7460) | | 이 준 교 팀장 (02-3145-7455) |
| |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김 태 경(02-3145-6770) | | 박 형 근 팀장 (02-3145-6773) |
| |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김 동 궁(02-3145-7550)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양 진 호(02-3145-8070) | | 정 용 걸 팀장 (02-3145-7447) 이 길 성 팀장 (02-3145-8072) |

제 목 : 최종구 금융위원장,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최
- ‘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발표

- ◆ 가계부채의 **안정적 관리 강화, 금리상승 리스크 요인 최소화,**
 既 발표대책 **후속조치 이행** 등을 통해
- ➡ ‘18년 **가계대출 증가율**을 **장기추세치(8.2%) 이내로 적극 유도**

1

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요

- 금융위원회는 '18.4.16일(월) 각 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하는
 금요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하여,
- '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체계적인 가계부채
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

[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요]

- (일시 / 장소) '18.4.16(월) 10:00 /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
- (참석) 총 15명
 - 금융위원장, 금감원 부원장
 - 은행연합회장, 금융투자협회장, 생보협회장, 여신금융협회장, 저축은행
 중앙회장, 신탁중앙회장, 농협 상호금융 본부장, 새마을금고 이사 등

2

모두 발언

-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'17년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만에 한
 자릿수인 8.1%를 기록하여 장기추세치 목표(8.2%)를 달성하는 등
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안정화되었다고 평가
 - 다만, '18년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,
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다양한 위험
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하며, 금융권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
 -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'18년에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
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,
 - '18년 가계대출 증가율도 장기추세치(8.2%) 이내로 유도해
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3가지 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을 제시
- * ❶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, ❷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,
 ❸既 발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

- 마지막으로,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·부동산·소비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로 “긴 호흡”을 가지고 “일관성”있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,
-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인 바, 금융권도 한 마음으로 다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

3

향후 대응방안

가.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

- (업권별 목표관리 지속)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·금융회사별 대출관리목표 수립 및 목표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

-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
→ 업권별 간담회·현장점검 등을 통해 목표이행상황을 집중 관리

- (커버드본드 활성화)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(Covered Bond) 공급 활성화 유도

- 적격대출 공급 축소(12조원 → 11조원),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(예 : 기존 배정방식 6조원,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 연계 5조원)
- 커버드본드 BIS비율 위험가중치 조정(은행), 발행분담금 경감(예 : 4bp → 2bp) 등

- (가계대출 여신관리 강화) DSR,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, 예대율 규제 등이 도입되지 않은 업권에 관련 제도 도입 추진

- (DSR) 제2금융권은 '18.7월부터 순차적인 시범운영 실시
- (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) 상호금융('18.7월), 저축은행·여전사('18.10월)
- (예대율 규제) 저축은행('20년, 잠정)

- (가계대출 건전성 관리) 급격한 금리상승 등에 대비하여 여신심사시스템 점검 등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

- 차주연령,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기준 마련, 장래소득 증액기준 합리성 점검, 우회대출 현장점검(필요시) 등

나.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

- (업권별 고정금리목표 상향)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, 여신심사 선진화 등을 통해 업권별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유도

- (고정금리 목표강화) 은행('17년 45% → '18년 47.5%), 보험('17년 30% → '18년 40%)
- (출연요율 우대) 고정금리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수준 확대
- (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) 저축은행('18.10월), 여신전문금융회사('18.10월)

- (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 제한) 은행권 공동으로 “변동금리 주담대”의 “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”하는 금융상품 출시('18.12월)

- (상품구조)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,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정산하는 구조
 - 금리인상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,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 유지 (금리인하시에는 반대)
 - 일정 기간(예 : 5년)마다, 월상환액을 조정하여 차주 상환 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

- (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)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,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검토('18.7월)

- * 중도상환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 이동이 용이해지고, 은행간 금리인하경쟁을 촉진

- (가산금리 점검) 은행의 가산금리가 합리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지를 금감원, 은행연 등과 함께 점검('18.3월~)

- 은행연·금감원 점검결과에 따라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모범규준 등 변경('18.7월)

다. 旣 발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

- (취약차주 지원방안 이행 점검) 취약·연체차주 지원방안('18.1월)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, 이행상황 철저 관리

- 담보권 실행유예, 원금상환 유예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소극적 운영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
- 쉐 금융권 연체금리 인하(약정금리 + 최대 3% 이내) 시행(4.30일)

- ☐ **(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)**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한계차주 대상 「금융권 공동 Sales & Lease Back(SLB) 프로그램」 운영('18.12월)

* SLB 프로그램에 주택매각 → 임대 거주 → 5년후 매각가에 재매입 가능

- ☐ **(비소구주담대 확대)** 비소구주담대를 정책모기지(보금자리론, 적격대출)에 우선 도입후, 민간은행 확산* 유도('18.12월)

* (예) 금융회사별 목표비율 설정 후, 인센티브 부여 등

- ☐ **(자본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)** 예대율 규제개선, 위험가중치 조정 등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('18.1월) 후속조치 이행

4

향후 추진계획

- ☐ 금융위, 금감원,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하여 규정 개정,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

- 또한,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정책성과를 조기에 실현하는데 정책역량 집중

※ 상세 내용은 「'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」(별첨) 참조

< 금융 용어 설명 >

- **(커버드본드)**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(Cover pool)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채권
- **(적격대출)** 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취급 후 주택금융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목적부 장기 고정금리·분할상환 대출
- **(비소구 주택담보대출)** 채무자의 부도 발생시,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제도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